

앞서 井上茂信 선생이 이와같은 기독교 자유주의 취약성 혹은 민주주의의 취약성이라는 것을 말씀하였으나 그것은 기독교적 생각의 취약성이라는 말과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하나의 문제 제기로 삼고자 합니다.

●井上茂信: 나는 신학의 문제는 모르므로 이것은 桜井一 선생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독교의 취약성에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 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桜井一: 기독교의 역사에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재미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지고 있는 교의가 단순화되었을 때에는 항상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의 하나의 단순화였습니다. 따라서 로마세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스콜라라는 체계를 가짐으로서 플라톤적인 것과 기독교적인 것이 하나되어 자기 완결적인 중세라는 사회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하나 성령이란 문제 즉 듀얼리즘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세계를 놓친것은 하나는 비잔틴 세계를 놓치므로서 케미스트리의 생각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없어져버렸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性)이란 면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융(Jung) 같은 이를보면 역시 남녀의 성숙에 케미스트리의 비의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성적인부패를 극단으로 부정함으로서 이 세계가 없어졌습니다.

이것이 근세에 들어오면 다시한번 인간성의 회복과 그리고 신앙의 회복이 되겠으나 칼빈이나 루-터에 의해 행해진 이들의 작용도 스콜라신학의 신앙의 단순화이며 그 행선이 오늘까지 온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칼빈이나 그 전통을 이은 바르트가 하나의 체계를 세워서 자기 완결적인 프로테스탄트의 세계 즉 데모크라시를 기본으로 한 세계를 형성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독일에 있어서 주로 나치즘에 대한 데모크라시의 승리라는 형식으로 바르멘선언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얼마안가 또 이 단순화가 19세기의 후반에서 20세기에 걸쳐 나온 것입니다.

통일교회의 교의는 기독교신학에서 보면 확실히 약한 면도 있고 대단히 단순한 이론인 것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종합화라는 면에서 볼때 새로운 모티브가 되므로 기독교 신학적 측면에서도 어떤 영향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형태속에서 구라파 사상에 대한 새로운 사상을 제공하여 온 것이 휴머니즘과 기독교와의 교차축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역시 기독교가 반대로 휴머니즘에 대해서 새로운 진리를 제공하는데에 유니피케이션의 힘을 빌리면서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봅니다. 역사는 그러한 방향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SESSION 2 (주제발표)

韓人共產主義運動의 特質

역사 위조작업은 김일성의 위조된 혁명경력을 주축으로 하여 확산시키는 작업이었다.



李 命 英
(성균관대·정치학)

I

韓族에게 共產主義思想이 들어 온 것은 1920年代初였다. 때는 3·1운동의 좌절로 韓族이 낙심과 허탈에 젖어 있을 때이다. 貧富의 차를 없앤다는 주장도 매력이 있었거니와 弱少民族解放이라는 구호는 더욱더 매력적이었다. 그래서 많은 獨立運動家들이 모스크바로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던 것이다.

獨立運動家로서 제일 먼저 共產主義와 손을 잡은 사람은 李東輝이다. 그는 벌써 1918년에 露領의 하바로프스크에서 韓人社會黨이라는 아시아 지역 최초의 共產主義政黨을 만들었다. 그러나 그는 共產主義理論을 제대로 이해하는 그러한 共產主義者는 아니었다. 그러면서도 그는 레닌 政府의 「弱少民族解放」 구호에 매료되어 소련의 원조로 獨立을 얻어 볼 必要으로 共產主義 깃발을 높이 들었던 것이다. 소련의 원조를 많이 얻으려면 그만큼 共產主義運動을 많이 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中國 上海에서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國務總理로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高麗 共產黨을 만들기도 했던 것이다. 1921年 1월에 上海에서 발족한 高麗 共產黨은 모스크바로 부터 받은 공작금으로 韓國內과 滿洲의 韓族社會에 선전과 조직을 침투시켰을 뿐 아니라 中國과 臺灣 그리고 日本의 共產主義者들까지도 지원 했다.

여기서 잠시 아시아 각국의 共產黨이 창설된 시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中國 共產黨은 1921年 7월이다. 日本 共產黨은 1922年 7월이다. 印支半島에 南洋 共產黨이 조직된 것은 1925年이며, 印度 共產黨의 첫 조직은 1925年이다. 韓人들의 共產主義運動이 海外에서 전개되다가 그것이 드디어 國內에서 조직의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은 後述하는 바와 같이 1925年 4월에 서울에서 발족을 보게되는 朝鮮 共產黨인 것이다.

韓人獨立運動家들은 第1次 世界大戰 후에 열린 두 개의 회의 즉 파리 회의와 워싱턴 회의에 민감한 기대를 걸었다. 두말한 것도 없이 월슨 대통령의 民族自決의 원칙이 어떻게 적용되는

나 해서였다. 특히 워싱턴 회의는 태평양문제를 거론한다 해서 관심이 더욱 컸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허사였다. 韓國의 독립은 커녕 韓國에 대한 사소한 관심도 표명되지 않았던 것이다. 때마침 레닌 政府는 極東勤勞者大會를 소집했다. 1922年 1월에 모스크바에서 열린 이 대회에 참석한 韓人은 모두 52명으로 中國 日本 蒙古 印度 등 어떤 나라의 대표단 보다도 제일 큰 대표단이었다. 훗날 民族主義者로서도 또 共產主義者로서도 유명했던 사람들이 한데 섞인 이 대표단의 규모는 모스크바에 대한 韓人들의 높은 관심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사실에 있어서 亡命 獨立運動家들에게 따뜻한 동정의 손길을 넘어서 동지적 유대의 대접을 베풀어 주는 자는 당시에 있어선 레닌 政府 밖에 없었다. 여비를 대주고 숙식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운동자금까지 대주었다. 모스크바 만세를 부르고 싶어 했을 심정이 이해할 만하다. 그러다 보니 共產主義 물결은 서서히 그러나 착실하게 스며 들기 시작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獨立運動家들이 레닌 政府에 실망하여 등을 돌리기 시작했으니 그 첫 계기는 1921年 6월에 발생한 저 유명한 「自由市慘變」이다.

시베리아의 自由市에 집결했던 韓人 무장 병력들이 赤軍에 의해 무수히 살상된 이 사건은 韓人들을 경악케 했다. 「약소 민족 해방」을 지원한다는 赤軍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겠다는 약소 민족의 군인들을 파리 목숨같이 일거에 참살해 버렸으니 韓人 獨立運動家들은 소련이란 나라를 다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게다가 사태는 설상 가상으로 악화됐다. 시베리아에 出兵 중이던 日本군대가 1922年 10월에 모두 철수하자 그때까지 赤軍과 함께 日本 군대와 필사적인 전투를 벌려 왔던 韓人 獨立軍들이 레닌 政府에 의해 모두 무장 해제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자기들이 급할 때는 독립을 후원하겠다는 약속을 미끼로 실컷 써먹다가 자기들 발등의 불이 꺼지니 이번에는 자기네 영토 안에서 독립 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고 해서 무장 해제를 시켜 버렸으니 이 의리 부동한 共產黨을 이 이상 더 어찌 믿겠느냐 해서 獨立運動家들은 모두 이를 갈았던 것이다. 그래서 韓人들에게는 「미국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말자」라는 속담까지 생겼던 것이다.

II

소련이란 共產國家의 출현에 기대를 걸었다가 배신을 당한 韓人 獨立運動家들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李東輝이다. 레닌이 직접 만나 주고 악수해 주고 고무해 주고 치켜 주고 공작금을 대주고 했던 그 李東輝를 소련은 결국 어떻게 대접했는가. 民族的 偏向(조국의 독립에 궁극적 목적을 두고 공산 혁명에는 궁극적인 목적을 두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을 공산당에서는 이렇게 말한다)이 심하다는 이유로 결국은 아무 활동도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傳說의 抗日英雄 金日成將軍(本名 金光瑞, 1911年 日本 陸士卒業)의 경우 역시 그렇다. 1천여명의 독립군을 이

끌고 赤軍과 함께 싸웠던 그는 무장 해제를 피하기 위해 부대를 蘇滿 국경으로 이동, 屯田兵制를 실시하며 계속 독립운동을 모색했으나 蘇聯의 배신 때문에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결국 소련의 목적은 약소 민족의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社會主義祖國」이란 이름 아래에 소련을 「조국」으로 섬길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각국에 대한 공산혁명이 그 목적이었던 것이다.

초기의 獨立運動家들이 사고무친 한 그리고 냉엄한 국제정치 속에서 그나마 한 가닥의 희망으로 모스크바를 쳐다 보았다가 창피스런 좌절을 당하고 등을 돌린 후에도 여전히 소련과 共產主義에 대한 매력을 잊지 못해하는 일단의 韓人들이 있었음은 물론이다. 그들에 의해 조심스럽게 옮겨진 발자욱에 빗물이 고였고 그 빗물이 이내 내가 되어 歷史의 小流를 이루더니 그 小流는 또 멀지 않아 歷史의 江이 되어 1925年 4월 드디어 서울에 朝鮮共產黨이 조직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이때로부터 국내외의 韓人社會에 共產主義運動이 더욱 성장하기 시작했다. 韓人 共產主義運動의 특징은 처음부터 이론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한채 오직 투쟁의 구호와 행동의 방침으로만 共產主義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급한 실천 운동이 앞섰다. 이 넘치는 행동주의는 左傾冒險主義 盲動路線이란 과오를 남기에 알맞았다. 貧富 격차의 원인을 오로지 「착취로 된 私有財產制度」에 귀착시키고 亡國의 원인을 帝國主義로 제국주의의 원인을 資本主義로 단순화시킴에 따라서 독립의 성취와 공평한 사회의 건설은 오로지 資本主義制度의 타도에만 있다고 한 이 暗示와 斷定에 찬 주장 앞에서 共產主義運動은 날로 행동력을 더해 갔다. 이 운동에는 두가지 원칙이 있었다. 하나는 무자비한 「폭력투쟁」이며 다른 하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위한 「조국 소연방의 堅決한 옹호」였다. 이를 지키지 않는 자는 「반동분자」「제국주의 스파이」「부르조아 민족주의자」였다.

共產主義者들은 공산주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을 무조건 적으로 몰아 무자비한 폭력 투쟁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1930年 1월에 발생했던 民族主義獨立運動의 巨將 金佐鎭將軍에 대한 共產主義者들의 暗殺이었다. 北滿의 中東線 鐵路의 山市站이란 곳에서 일어났었다. 韓族의 抗日武力鬪爭의 歷史에 있어서 金字塔의 勝戰記錄을 세웠던 1920年 10월 19일부터 22일에 이르는 동안의 東滿의 和龍縣 靑山里에 있어서의 日帝軍隊와의 大血戰에 있어서의 指揮總司令이었던 金佐鎭將軍을 共產主義者들은 오직 主義가 다르다는 한가지 이유 때문에 감히 殺害했던 것이다.

더 끔찍한 사건은 같은 해(1930年)에 東滿의 延吉縣 銅佛寺란 곳에서 발생했던 殺父會事件이다. 270명의 아버지들이 하룻밤 사이에 목숨을 잃은 사건인데 靑年들이 혁명을 한다고 수군대며 물러 다니는 것이 위험하다 해서 아버지들이 걱정이 돼서 진정들 하라고 말렸다고 해서 아버지들을 反動으로 몰아 殺父會를 조직, 무자비한 革命的氣慨를 보인답시고 서로서로 아버지를 바꾸어 담당, 하룻밤 사이에 270명을 살해하고 말았던 것이다.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 사상에 이렇듯 極左的인 蠻行은 일찌기 없었다. 共產主義者들이 民族主義 獨立運動家들을 「봉건적 반

동분자」로 「부르조아의 대변자」로 그리고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몰아 타도의 대상으로 삼으니 따라서 민족주의자들은 또共產主義者들을 「赤色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남의 나라(소련)를 조국이라 부르는 「민족반역자」로 그리고 자유를 억압하는 「압제주의자」로 몰아 또한 타도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리하여 共產主義者와 민족主義者는 「階級革命至上」대 「民族解放至上」, 「無產者國際主義至上」대 「民族國家獨立至上」이라고 하는 뚜렷한 두개의 진영으로 나누어지고 끝내 타협을 못했다. 민족주의자들의 총본산인 大韓民國 臨時政府의 「民族解放至上」 「國家獨立至上」 노선은 이렇게하여 형성된 것이다. 민족主義者나 共產主義者가 다 같이 抗日鬪爭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와 같은 기본적인 이념과 노선의 차이 때문에 협동 전선을 구축치 못했을 뿐 아니라 서로 적대관계에까지 있었다고 하는 이 역사적 사실 속에서 우리는 1945년의 國土分斷의 民族內的 要因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오직 미·소 양국의 전략적 利害의 상치 때문만이 國土分斷의 비극을 초래한 것이 아니라 韓民族 자체 내부가 먼저 분열되어 있었던 것이다.

III

이론적 연찬이 부족하면 실천 행동도 경솔한 범이다. 1925年 4월에 결성된 朝鮮共產黨이 불과 3년 사이에 4차례의 대검거를 만나 조직이 괴멸적 타격을 받았던 데는 비단 일제 경찰의 비상한 능력만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韓人들의 경솔한 행동도 문제였다. 이론무장의 불비에서 오는 이러한 체질적 결함은 코민테른이 朝鮮共產黨의 승인을 취소하고 그 재조직을 지시한 1928年의 12月 테제 이후의 당 재건 공작에서도 여실히 나타났었다. 12月 테제 자체가 韓國의 실정에 어두운 그야말로 공식에 치우친 지령문이었거니와 그래도 韓人共產主義者들은 그 코민테른의 테제만을 존중할 줄 알았지 스스로의 테제를 생산할 줄은 몰랐다. 그리고 또 일제의 가증하는 탄압의 결과로서 당 재건을 위한 슬한 시도와 끈질긴 고투에도 불구하고 8·15해방 때까지 당 재건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코민테른의 지령대로 노동자 농민속에 당의 기반을 구축하려는 지하공작으로서의 赤色勞動組合 赤色農民組合운동의 뿌리는 대단히 끈질기고 깊었다. 또 학생들에게로 침투하는 선전 교양 운동도 대단히 집요했다. 그 불굴의 운동과정에서 슬한 사람들이 투옥되었거니와 더러는 옥사했고 더러는 해방되어서야 출옥할 수 있었다. 이들을 일컬어 國內派 共產主義者라고 하거니와 金綴洙, 朴憲永, 吳琪燮, 朱寧河, 李康國, 金三龍, 李舟河, 李承燁, 許成澤 등등이 그 대표적 면모들이다. 이들 중 金綴洙(1892年生)는 平壤으로 가지 않고 현재도 고향인 全北 扶安에 살고 있으며 金三龍과 李舟河는 南韓에서 처형되었고 나머지는 平壤政權에 참가하였다가 모두 억울하게 숙청되었다.

1928年의 12月 테제로 서울의 中央黨을 상실한 朝鮮共產黨 滿洲總局 관계 韓人共產主義者들은 一國一黨의 원칙에 따라 中國共產黨에 입당하게 되었다. 中共黨은 朝鮮共產黨員들을 입당시킴에 있어서 개별심사와 혁명적 黨性的 발휘라고 하는 두 가지 전제를 제시했다. 그리하여 발생한 것이 1930年 5月 30日의 間島暴動事件이다. 中共黨中央의 李立三路線에 따른 이 폭동에 뛰어들어 韓人들은 대단한 용감성을 발휘했으나 집단 자살에 가까운 정도의 희생자를 냈고 또 코민테른으로부터는 極左盲動이란 치욕의 비판을 받았다. 그래도 나라를 잃은 勞動移民으로서의 在滿韓人農民들의 二重의 劣惡한 생활조건이 共產主義運動의 기반이 되기에 알맞았으므로 많은 새로운 韓人들이 中共黨 滿洲省委員會 산하 각종 조직에 가담했다. 그리하여 朝鮮共產黨의 조직은 滿洲에서 사라졌으며 이래로 滿洲에는 韓人들 스스로의 조직이나 운동은 영원히 없게 되었다.

1930年은 滿洲에서 韓人共產主義運動이 中國共產黨에 吸收되어 버린 해일 뿐 아니라 그 운동의 성격이 본래부터의 極左盲動性을 더욱 두드러지게 고도로 발휘했던데서 기록이 남아야 할 해이기도 했다. 위에서도 言及했던 5·30間島暴動事件이나 銅佛寺에서의 殺父會事件 말고도 도처에서 殺人的 蠻行이 革命的 美名下에 恣行되었는데 그러한 것 中の 하나에 吉黑農民同盟事件이란 것이 있었다. 1930年 가을에 吉林省懷德縣 五家子 一帶의 韓人農村을 무대로 일어났던 이른바 反動分子에 대한 打殺·絞殺事件이다. 여기에는 오늘의 北韓 金日成이 18세의 몸으로 主犯의 한 사람에 관계했다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韓人共產主義者들이 中共黨에 吸收된 뒤에도 極左盲動性은 如前했다. 1932年 5月 30日에 발생한 南滿의 盤石縣에 있어서의 韓人男女 53명에 대한 大虐殺事件이 그 代表的 케이스가 될 것이다. 中共黨南滿特委 盤石縣委員會가 저지른 事件이다. 이 조직은 흔히 盤石共產黨이라고 불리었는데 幹部나 黨員의 거의 모두가 韓人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二年前에 韓人들이 저질렀던 間島暴動事件記念日을 기해 평소에 자기들 말을 잘 듣지 않던 韓人들에 대한 報復的 肅清事業으로 虐殺을 敢行했던 것이다. 이에 관한 기록을 뒤져보면 그 人面鬼心的 蠻行에 소름이 끼친다. 共產革命이란 名分만 내세우면 어떤 짓도 美化되는 줄로 알고 있었던 당시의 風潮가 잘 나타나 있다. 反革命分子로 지명한 青年을 결박하여 놓고 黨의 이름으로 死刑宣告, 그의 부인에게 共產主義에 찬성안하면 너도 죽이겠다 하여 부인이 살고 싶은 생각에서 자기는 共產主義를 지지한다고 대답하면 지지의 표시라 해서 남편이 보는 앞에서 共產黨員과의 肉體關係를 강요하는 따위 蠻行까지 있었던 事件이다.

1931年 9월에 日本이 무력으로 滿洲를 점령하고 다음해에 괴뢰 滿洲國을 세우게 되자 中國人들이 反滿抗日武力鬪爭이 사방에서 일어났던 중에서 1933年 9월부터는 中共黨의 무장부대인 東北人民革命軍도 속속 조직되어 갔다. 많은 韓人共產主義者들도 여기에 참가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 앞에는 민족이나 국경이 있을 수 없다고 믿었던 韓人들이었으나 中國人共產主義者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발생한 것이 1935年初의 東滿의 東北人民革命軍 근거지를 피로 물들인 민

生團事件이다. 韓人들은 오로지 韓人인 까닭으로만 해서 日本의 앞잡이인 民生團員으로 지목받아 4백여명이란 많은 사람들이 피의 숙청을 당했던 것이다. 1936년에 東北人民革命軍은 東北抗日聯軍으로 개칭되고 그 第1路軍은 東南滿을, 그 第2路軍은 東北滿을 그리고 그 第3路軍은 北滿을 유격구로 했는데 총병력은 가장 왕성했을 때가 2천여명 정도였다. 이들은 산악 지대 밀림속을 流動하면서 보급 때문에 무차별 약탈, 살인, 납치를 자행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결국은 민중의 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때 이 東北抗日聯軍中에서 韓人으로서 가장 사건을 많이 일으킴으로서 유명해졌던 사람은 第1路軍 第2軍 第6師長 金日成이다. 그는 1937年 6月 4日 밤 威鏡南道甲山郡普天堡를 습격했던 사람으로서 그는 1937年 11月 13日에 戰死했다. 그러자 그 뒤를 이은 사람이 金日成이란 이름까지 계승하고 第1路軍 第2方面長이 되어서 많은 사건을 일으켰는데 1940年末 蘇聯에 가서 解放前에 그곳에서 죽었다. (北韓의 金日成은 위 두 金日成의 經歷을 주로 美化變造하여 자기 것으로 하고 있다).

1940年末에 東北抗日聯軍이 총봉괴되면서 3백여명의 패잔병이 소련으로 도주했을 때 그 속에는 韓人들도 백여명 가량 있었다. 이들은 소련에 의해 재훈련을 받기도 하고 더리는 첩보 활동차 다시 滿洲로 파견되었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8·15때에 소련軍이 이들을 北韓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들의 숫자는 60~70명 정도였다. 이들을 일컬어 東北抗日聯軍系共産主義者라고 하거니와 지금도 北韓을 통치하고 있는 金日成(본명 金聖柱, 東北抗日聯軍 때의 이름은 金一星)을 비롯하여 崔庸健, 金策, 崔賢, 金一, 姜健, 朴成哲 등이 그 대표적 면모들이다. 이들 중 崔庸健은 병사했고 金策은 6·25때 謀殺되었고 1982年의 崔賢의 죽음도, 모살설이 유력하며 姜健은 6·25때 전사했고 金一은 1984年 3月에 죽었다. 朴成哲은 아직도 金日成의 곁에 있다. 韓人共産主義運動의 한 줄기는 1940年代 전반의 中國 華北에서 그 뿌리가 자랐다. 1930年代 중엽에 있어서 國民政府 관할 지역의 이곳 저곳에서 抗日戰線에 가담하고 있던 韓人共産主義者들은 30年代末부터 華北의 延安에 있는 中共黨의 韓人간부들과 연락하면서 그곳으로 집결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中共黨 지원하의 抗日戰線에 참가하기를 열망했던 것이다. 1941年 1月에 이들은 延安에서 華北朝鮮青年聯合會를 발족시키고 다음해 7月에는 그것을 朝鮮獨立同盟과 朝鮮義勇軍으로 발전시켰다. 이들의 총수는 3백명 내외였다. 朝鮮獨立同盟은 華北의 여러 곳에 조직망을 펴 韓人들의 규합에 애썼으며 朝鮮義勇軍은 中共黨의 八路軍 각 부대에 배합되어 공작했으며 직접 對日戰鬪에도 참가했다. 전투에서는 여러 사람의 전사자도 있었다. 日本이 패망하자 이들은 中共黨의 지시로 滿洲에 진출, 韓人青年들을 朝鮮義勇軍 산하로 규합하여 그 세력이 일시 상당한 숫자로 늘기도 했었다. 그중 어느만큼의 사람들이 北韓으로 돌아왔는지는 알 길이 없다. 이들을 일컬어 延安派共産主義者라고 하거니와 金料奉, 武亨, 崔昌益, 韓斌, 朴孝三, 朴一禹, 許貞淑, 金昌滿 등등이 그 대표적 면모들이다. 이들중 武亨은 6·25때 모살되었고 許貞淑만이 오늘날 살아남았을 뿐 나머지는 모두 억울하게 숙청되었다.

IV

1945年 8·15와 함께 찾아 온 政治的自由의 시절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등장한 政黨은 그해 9月 11日 서울에서 발족한 朴憲永을 당수로 하는 朝鮮共産黨이다. 1928年 12月 테제 이래 韓人共産主義者들이 그토록 열망했던 韓鮮共産黨의 재건이었거니와 日帝下에 있어서나 해방후에 있어서나 韓民族의 역사는 언제나 부르조아 政黨보다 한발 앞서서 프롤레타리아政黨이 먼저 출현하는 逆順의 역사였다. 國內派共産主義者들이 모두 이 재건된 朝鮮共産黨에 참가했음은 물론이다.

한편 蘇聯軍 점령하의 平壤에서는 蘇聯軍 당국의 조종하에서 東北抗日聯軍系 共産主義者들로서 1945年 10月 10日부터 13日 사이에 朝鮮共産黨 北朝鮮分局을 발족(오늘날 朝鮮勞動黨의 창당 기념일인 10月 10日로 되어 있는 유래는 여기에 있다)시키고 서울 中央黨의 朴憲永 앞으로 축전을 보냈다. 朴憲永은 10月 23日에 北朝鮮分局을 승인했다. 이때 北朝鮮分局의 사실상의 중심 인물은 오늘의 北韓의 金日成이었으나 蘇聯軍 당국은 아직 그를 책임자로 나서게는 하지 않았다. 그는 그해 12月 17日의 北朝鮮分局 제 3차 확대집행 위원회에서 朝鮮共産黨北朝鮮分局을 北朝鮮共産黨으로 개칭함과 동시에 비로소 그 책임비서로 나섰으며 동시에 서울 中央黨으로부터의 독립을 꾀하고 나섰던 것이다.

해방되던 해의 늦가을과 초겨울에 걸쳐 平壤에 도착한 延安派共産主義者들은 1946年 3月 30日 따로 朝鮮新民黨을 발족시키고 北韓 各道에 조직을 전개했으며 서울에도 사람을 보내 7月에는 南朝鮮新民黨을 발족시켰다. 南北 新民黨의 정강 정책은 물론 共産黨의 그것과 대동 소이했으므로 따라서 南北에는 각각 두 개씩의 共産黨이 출현한 셈이다. 이는 一國一黨을 지향하는 共産黨으로서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선 北朝鮮共産黨은 朝鮮新民黨과 합당함으로써 그해 8月에 北朝鮮勞動黨으로 출발했고 서울의 朝鮮共産黨은 南朝鮮新民黨과 그리고 당면 노선이 비슷했던 朝鮮人民黨과 합당함으로써 같은 해 11月에 南朝鮮勞動黨으로 출발했다. 이로써 南北엔 우선 각각 하나씩의 勞動黨이란 이름의 共産黨이 있게 되었거니와 이는 蘇聯軍이 그들의 이익 대변자로 내세운 金日成에게 독립된 共産黨을 안겨 주려던 그들 계획에 있어서 우선은 일대 진전이였다. 이때 北朝鮮勞動黨에는 蘇聯軍이 北韓에다 共産政權을 세우기 위해 蘇聯으로부터 불러 온 많은 2世韓人들도 가담했었다.

사실 蘇聯軍 당국은 처음부터 北韓에다 독립된 共産黨과 독립된 政權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였다. 자기들 품 안에서 양육하여 데리고 온 東北 抗日聯軍系 共産主義者들을 주축으로 할 방침이였다. 그러나 한 줌 밖에 안되는 그 세력으로서로는 도저히 불가능했으므로 우선 國內派共産主義者들과 합작시킬 수 밖에 없었다. 그러자니 처음에는 부득불 朝鮮共産黨 北朝鮮分局으로 출발시킬 수 밖에 없었다. 다음 단계로는 南北 共産黨을 분리 독립 시키기 위해 延安派共産主義者

들로 하여금 따로 共產黨을 조직케 하여 통합의 필요성을 낳게 하는 일이었다. 延安派가 蘇聯軍 政下에서 朝鮮新民黨이란 또 하나의 共產黨을 조직할 수 있었던 것은 蘇聯軍 당국의 허락이나 중용없이 될 법도 한 일이 아니었다. 南韓에도 똑같은 필요성을 조성시키기 위해 南朝鮮新民黨을 조직케 했음은 물론이다. 南北 新民黨이 각기 발족한지 불과 4, 5개월만에 南北 共產黨에 통합되고 만 것을 보더라도 지간의 사정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蘇聯의 韓半島政策은 蘇聯軍이 1946年 2월에 벌써 金日成을 委員長으로 하는 北朝鮮臨時人民 委員會라는 이름의 金日成政權을 만들어냈던 데서 이미 역력히 나타났었다. 韓半島를 공산화하기 위한 基地로서 北韓을 장악해 두자는 소련의 계획은 UN 총회가 南北韓 총선거에 의한 統一獨立政府의 수립을 결정했을 때 金日成으로 하여금 그것을 거부케 하는데서 더욱 명백하게 드러났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처사에서 비로소 소련의 계획이 그 얼굴을 내민 것은 아니다. 실은 소련이 北韓을 점령한지 불과 두 달만에 본명 金聖柱 별명 金一星이라는 무명의 청년을 「金日成장군」으로 위장 등장시키고 대대적인 환영 대회를 벌리게 했을 때 이미 그 계획은 확고 부동한 실천 단계에 들어섰던 것이다.

南北 총선거안에 대한 北韓側の 거부로 南韓만의 선거가 실시되어 1948年 8月 15일에 大韓民國政府가 수립되었다. 9月 9일에 北韓에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미 성립되어 있었던 金日成政權을 공식화 시켰다. 이에 앞서 南朝鮮勞動黨의 대부분의 지도 간부들과 활동 분자들은 1947年과 48년에 이미 平壤으로 갔거나 지하로 깊이 잠복했다. 革命事業을 명분으로 한 犯法行爲로 인한 광범위한 검거 및 체포령의 발동 때문과 金日成政權에의 참여를 위해서였다. 朴憲永을 비롯한 南朝鮮勞動黨의 최고 간부들이 金日成을 수반으로 하는 그 政權에 보조자로서 참여했음은 물론이다. 여러 갈래의 共產主義者들을 총망라한 政權의 수반으로 들어 앉게 된 金日成의 다음 목적은 南北韓의 共產統一이었다. 이에 있어서 선결 문제는 南北 勞動黨의 통합이었다. 1949年 6月 30일에 平壤에서 있는 北朝鮮勞動黨과 南朝鮮勞動黨의 합당과 그에 따른 朝鮮勞動黨의 탄생은 南朝鮮勞動黨의 대부분의 간부들이 平壤에 집결해 있었고 또 金日成政權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본다면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따지고 본다면 北朝鮮勞動黨 때만 하더라도 일부러 第2人者의 자리에 있었던 金日成이 朝鮮勞動黨에 이르러 드디어 委員長으로 등장했다는 사실은 蘇聯의 장기적인 공작이 비로소 결실했다는 의미도 의미이러니와 이로써 金日成은 드디어 南韓의 당원들에게까지 당수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데에 더 현실적인 의미가 있었다. 서울에는 南朝鮮勞動黨의 지하당이 남아있어서 그 지도 간부인 金三龍과 李舟河가 체포되던 1950年 3月까지는 조직의 맥이 살아 있었으며 설사 조직은 파괴되었더라도 사방에 흩어진 黨員들은 많았다. 그러나 그러한 의미보다 더 결정적인 의미는 朝鮮勞動黨이란 단일적 共產黨의 탄생이 蘇聯과 金日成에게 韓半島 共產化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서의 통일된 당적 조직적 담보를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데 있었다. 朝鮮勞動黨이 발족한 날이 南韓에서 美軍의 철수가 완료된 바로 그 다음날이었다는 사실도 의

미 심장하거니와 더욱더 의미 심장한 것은 그것이 北韓의 南侵戰爭 준비의 진행과 병행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V

우여곡절로 가득찬 韓人共產主義運動의 물줄기가 朝鮮勞動黨에 이르러 金日成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으로 정비되었을 때 그것은 과거 운동의 역사를 총괄하는 이정표였던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목표로 돌진하기 위한 동원 태세의 출발이었다. 朝鮮勞動黨 앞에 가로 놓인 목표는 물론 共產統一이었다. 그것은 蘇聯의 世界戰略의 일환이었으며 金日成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의 첫 관문이었다. 그들이 1950年 6月 25日의 南侵戰爭으로 이 관문을 돌파하려 했을 때 그들은 실패했다. 그러나 참혹한 전화의 잿더미 위에 덩구는 슬한 屍身들 속에는 뜻밖에도 金日成에 의해 모살된 朝鮮勞動黨의 막강한 지도 간부들이 섞여 있었다. 패전의 실패를 보상받을 그의 승리는 실로 동지들의 제거에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패전의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더 많은 막강한 지도 간부들을 제거할 수 있었다. 朝鮮勞動黨의 발족이 韓人共產主義運動의 총괄이 되지 못했던 것을 그는 南侵戰爭을 통해 총괄이 아닌 청산으로 대치케 하는데 성공했던 것이다.

따라서 金日成의 朝鮮勞動黨에게 있어서 6·25 南侵戰爭의 중요한 의미는 韓人共產主義運動의 참 역사를 전화의 잿더미 속에 묻어 버려도 된다는 데 있었다. 그것은 동시에 金日成에 의해 창시되고 오로지 그에 의해 영도되었다는 새로운 韓人共產主義運動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조작해 내는 神話創造作業의 출발이기도 했다. 1952年 4月이란 시점에서 朝鮮勞動黨이 처음으로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공식 발표한 金日成의 위조된 革命經歷이란 것의 역사적 의미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는 것이다. 朝鮮勞動黨의 혁명적인 歷史偽造作業은 金日成의 위조된 革命經歷을 주축으로 하여 그것을 韓族의 近代史에로 확산시키는 작업으로 연동되었다. 그것이 1958年 9월에 朝鮮勞動黨에 의해 발간된 朝鮮民族解放鬪爭史라고 하는 위조된 韓族의 近代史이며 위조된 韓人共產主義運動史인 것이다.

歷史의 진행을 이렇게 深層分析해 보면 6·25란 韓族의 半萬年歷史에 있어서의 최대의 비극이 실은 金日成에게는 최대의 幸運이었다는 사실이 부각된다. 民族의 비극과 金日成의 幸運의 뿌리가 같다는 이 사실 속에 앞으로 이 民族이 어떻게 歷史와 對決해 나가야 하겠느냐 하는 문제가 숨어 있는 것이다. 다음 表는 6·25때의 人命被害를 표시한 것이다.

〈軍人命被害〉

	전 사	부 상	실 증	포 로	계	총 계
韓 國 軍	149,005	717,083	132,256	9,634	1,007,978	1,167,719
U. N 軍	36,837	115,083	1,554	6,267	159,741	
北 韓 軍	294,000	226,000		112,000	632,000	1,563,000
中 共 軍	184,000	716,000		36,000	931,000	

〈民間人命被害〉

	사 망	학 살	부 상	납 치	행방불명	총 계
韓 國	244,663	128,936	229,625	84,532	303,212	990,968
北 韓	406,000		1,594,000		680,000	2,680,000

南北을 통해 軍人으로는 각각 1,167,719명과 1,563,000명(計 2,730,719명), 民間人으로는 각각 990,968명과 2,680,000명(計 3,670,968명), 以上 총계 6,401,687명이란 엄청난 人命被害의 비극을 치르고 그 위에 金日成의 永久執權의 條件構築과 韓族의 歷史 捏造의 始發이 있었다 함은 너무도 가혹한 운명이요 너무도 가혹한 시련이 아닐 수 없다. 共產主義革命의 完遂(즉 共產統一의 成就)를 위해 불가피했던 것이라고 金日成과 朝鮮勞動黨은 말하고 있겠지만 그것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가 아니라 성공했어도 그야말로 極左盲動冒險主義路線의 極致였으며 또한 人民을 위한 革命이 아니라 個人의 權力을 위한 暴動이었다고 하는 歷史的 評價만은 먼치 못했을 것이다.

北韓에 있어서의 歷史의 偽造作業은 1958년의 책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로 거창한 날조를 위한 하나의 習作에 지나지 않았으니 저들의 歷史위조 작업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 대담해지고 더 정교해지고 더 장엄해졌다. 金日成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先代들도 유일 무이한 歷史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다. 동시에 그 歷史 위조에 장애가 될 만한 사람들은 차례로 숙청되었다. 歷史는 언제나 因果의 法則을 따르기 마련이어서 그와 같은 숙청→역사 위조→숙청→역사 위조의 악순환은 필경 그 모든 것을 은폐할 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를 필요로 했는데 朝鮮勞動黨은 그것을 權力世襲의 길에서 찾아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權力世襲의 길이 또 필요로 하는 것이 있었은 즉 그것은 權力 세습을 합리화할 역사적 뒷받침의 구축이었다.

1970年代에 들어서서부터의 朝鮮勞動黨의 또 한바탕의 대대적인 歷史의 위조 작업은 바로 이에 대한 대답이었다. 1980年 10月の 朝鮮勞動黨 第6次黨大會에서 金日成父子 世襲體制를 공식화한 朝鮮勞動黨이 1981年과 82年 사이에 완성하여 발간한 朝鮮全史 근대편과 현대편은 바로 그 權力世襲을 역사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위조해 낸 저들 작업의 현재로서의 가장 장엄한 決定版인 것이다. 原始時代부터 시작하여 1980年 現在에까지로 이어지는 이 半萬年의 全史에 있어

서 1860年代로부터 1945年 解放에 이르기까지의 80餘年の 歷史는 全體分量의 $\frac{1}{3}$ 을 차지하며 그 $\frac{1}{3}$ 中的 $\frac{3}{4}$ 은 金日成과 그 一家의 歷史이다. 다시 말하여 韓民族의 가장 험난했던 時代의 歷史가 온통 金日成一家의 歷史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엄청나게 僞造된 歷史위에 한 共產黨의 權力의 正統性이 구축되었다는 사실은 世界에서 그 類例가 없다.

VI

이상에서 韓人共產主義運動의 歷史를 概觀하였거니와 이제 이 歷史 속에서 그 運動의 特質을 다시 요약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結論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첫째, 日帝의 壓迫 속에서 解放과 獨立을 갈구했던 韓人들의 처지였기에 蘇聯의 弱少民族解放口號에 매료되어 아세아 地域 최초의 共產黨조직을 만들어 낸 것이 韓人共產主義運動이다.

둘째, 그러나 蘇聯으로부터 最初의 背信을 당한 것도 韓人공산주의 운동이다. 이 背信은 Comintern의 1928年 12月 테제에 의한 朝鮮共產黨의 承認取消에 이어졌고 解放後에는 韓人共產主義운동의 正統의 흐름과는 관계도 없는 金日成一黨에게 黨과 權力을 내맡긴 背信으로 이어졌으며 동시에 그것은 6.25란 처참한 戰爭까지 일으키게 하는 비극으로까지 이어졌으니 蘇聯은 韓民族과 韓人共產主義운동에 처음부터 끝까지 背信을 거듭해 온 것이다.

셋째, 韓人의 공산주의운동은 理論에 대한 學習이나 研究가 있을만한 여유가 없이 대뜸 行動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공산주의에 관한 書籍의 저술은 물론 論文하나 나온 것이 없다. 韓人이 스스로 제기한 테제 하나 없다. 이는 오늘의 北韓에서도 똑같다. 저들은 사상이론면에서 이른바 Marx-Lenin主義書庫에 남길만한 論文하나 生産 못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위와같은 사정의 당연한 결과는 공산주의를 단지 行動의 Slogan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그것도 대단히 감정적인 行動의 Slogan으로서였다.

다섯째, 머리가 비어 있는 데다 감정적 行動의 Slogan에만 빠지다보니 소위 革命운동은 자연히 極左盲動으로 흐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治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었던 滿洲의 韓人社會에서 그 傾向은 두드러졌다. 이 경향은 1933年 以來 中共黨 滿洲 조직이 抗日軍事路線을 취하게 되자 더욱 惡化했다. 抗日과 革命의 美名下에 殺人, 납치, 방화, 강탈의 匪賊的 行脚이 자행되었던 것이다.

여섯째, 1920年代 以來와 1930年代의 위와 같은 몹쓸 風潮와 行動이 판을 치던 狀況속에서 成長하고 또 그 行脚의 一員이었던 金日成 같은 盲動分子가 韓人共產主義운동의 正統을 제끼고 解放된 이 나라의 共產黨의 수령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역시 他의 類例가 없는 特質이다. 朝鮮勞動黨은 韓人共產主義운동의 最惡의 遺傳因子로 된 黨이며 그 黨首 金日成은 가장 劣惡한 資質의 人物이다.

일곱째, 이러한 惡의 歷史를 善의 歷史로 改書하기 위한 契機가 6·25였다. 金日成과 그 黨은 6·26를 통해 지난 30年の 공산주의운동의 참모습을 無로 清算해 버리고 새 共產主義운동의 歷史를 창작해 냈다. 民族의 비극이 金日成一黨의 幸運과 뿌리를 같이 한다는 惡연한 사실이 있게 된 것이다. 저들은 이 모든것을 끝까지 감추고 그들의 偽造된 正統性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 世襲執權 態勢까지 확립해 놓은 것이다.

여덟째, 따라서 이 모든 惡의 特質들을 청산하고 民族의 幸運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金日成父子體制가 청산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對話와 交流의 새 時代가 올 수 있다. 對話와 交流가 있어야 勝共思想을 전파할 수 있다. 北韓人民들의 나쁜 共產思想에 물든 體質을 개혁하기 위한 勝共思想의 전파의 길이 열릴 때 비로소 韓半島에 勝共統一의 새벽이 온다.

아시아의 歷史는 韓半島를 지배하는 者가 아시아를 지배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韓半島를 共產主義에 의해 지배케 할 것인가 勝共主義에 의해 지배케 할 것인가. 우리는 모두가 Asia에 勝共樂園의 實現을 알리는 새 아침이 到來할 것을 고대한다. 이를 위해 金日成父子體制的 청산으로부터 勝共운동의 과녁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拙著 · 在滿 韓人 共產主義 運動研究(서울, 성대출판부 1975).
- ◇ · 權力の 歷史 —朝鮮勞動黨과 近代史— (서울, 성대출판부 1983).
- 拙稿 · 共產主義思想의 傳播過程(서울, 아카데미논총 제10집 「동서사상의 만남과 한국」에 수록)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 1982).
- 日帝下의 小作 및 勞動爭議와 思想事件에 關한 研究(성대논문집, 제32집에 수록) (서울, 성균관대학 1982).
- 南北韓 對話交流不通의 基本原因(亞細亞학보 제17집에 수록) (서울, 아세아학술연구회 1983).
- 北韓政治權力의 實態와 展望(광장, 1983. 4월호에 수록) (서울,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 1983).
- 朝鮮勞動黨의 正體(통일 1983. 10월호에 수록) (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83).

● SESSION 2 (코멘트)

韓人共產主義運動의 特質



中川學
나카가와 마사루
(一橋大 中國경제사)

李선생은 일본어로 번역된 '4인의 김일성'이란 저작으로 일부 일본의 식자들에게는 알려져 있으나, 오늘 말씀하신 한인 공산주의 운동의 역사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일본뿐 아니라 세계의 공산주의 운동사 연구자료를 조사해 보았는데, 현재 미국에서 가장 주도적인 하버드 대학의 벤자민 슐츠 교수의 저작에도 나오지 않으며, 주로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스투아트 슈람 교수의 저작에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대단히 귀중한 사실을 가르쳐주신 데 대해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본 회의가 제주도에서 개최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저는 일본인으로서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전쟁 중의 일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1942년 2월에 국제연합(UN)이 남북의 한국 총선거에 의해 통일 독립정부를 수립하려는 안을 채택하려 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소련이 김일성을 지지, UN의 안을 거부함으로써 남쪽만의 독립선거가 되었고, 이에 항거하는 운동이 이 제주도에서 심하게 일어났으니 이 뼈아픈 4. 3사건으로 1년 남짓 만에 8만 도민중 1/3이 실종되는 비극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일본의 잘못된 지배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때, 추모의 기도에 대신하여 이 코멘트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이상현 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는 확실히 좁은 민족주의에 사로잡혀서도 안 되고, 이것을 넘어서서 참된 세계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역시 역사의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시하는 용기를 가지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李선생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북한은 역사를 개조하고 날조하여 조선 역사 전체를 고쳤음